

장수에 얽힌 이야기

수즉다욕(壽則多辱)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한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일찍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고이래 사람은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지만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는 말이 있지 아니한가. 그만큼 70세(古稀)까지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장수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진시황(秦始皇)이다. 기원전 219년에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는 만년에 불로장생하는 선약(仙藥)에 열중해 신선술을 연구하며 선도(仙道)를 행하는 방사(方士)들로 하여금 불로초(不老草)를 구해오도록 명했다.

그러나 방사들은 불로장수하는 선약을 만든다는 구실아래 황제에게 수만금을 받아 탕진한채 결국 선약을 만들어내지 못하자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겁내어 황제의 부덕을 마구 욕하고 피신해 버렸다.

이에 대로한 시황제는 460여명의 유가(儒家)들을 붙잡아 구덩이를 파고 모두 생매장해 버렸다. 이것이 바로 경유(坑儒) 사건이다. 하지만 불로장생을 위해 안간힘을 다했던 시황제도 기원전 210년 결국 50세 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했다.

옛날부터 불로장생한 사람으로는 3천갑자 동방삭(東方朔)을 빼놓을 수가 없다. 동방삭은 한(漢)나라의 무제(武帝)때 해학가요, 황제의 말벗이었다.

일설에는 그가 갑자년을 3천 번이나 살았다고 전해진다. 갑자년은 60년에 한번 돌아오니 통산 18만년 즉 18만살이나 살았다는 말이다.

아마도 이는 그가 기지에 찬 문장가였을 뿐만 아니라 해학가로서 늙어서도 언제나 동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장수한 것으로 믿게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의 시조 단군왕검이 단연 죽보를 내보일만 하다.

단군은 천제 환인(桓因)을 할아버지로, 하계에 강림한 환웅(桓雄)을 아버지로, 꿈에서 인간이 된 웅녀(熊女)를 어머니로 해



이른바 정년후, 퇴직후의 삶이 30년 내외가 된다고 가정하면 국가적으로도 노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각종 선거에서도 노인들의 표를 잡기 위한 정책개발이나 공약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의 힘 즉 실버 파워가 막강해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태어났다고 한다.

단군은 중국의 요(堯)시대인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운 뒤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 뒤 기자(箕子)에게 왕위를 선양하고 산으로 올라가 은둔해 산신(山神)이 되었다고 한다.

그때 단군의 보령(寶齡, 나이)이 1908세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21대 영조대왕이 손꼽히고 있다. 19대 숙종과 천비소생(賤婢所生)인 무수리(나인들에게 세숫물을 떠다 받치는 종) 출신의 숙빈 최씨 사이에서 태어난 영조는 6명의 부인에게서 2남 7녀의 자녀를 두고 1776년 83세를 일기로 붕어(崩御)했다.

영조는 조선 27왕 가운데 가장 장수한 왕이었고 가장 오랫동안(51년 7개월) 왕위에 있었던 임금으로 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게 장수지만 장수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장자(莊子) 천지편(天地篇)에 보면 고대 중국의 요(堯)임금이 화(華)라는 지방을 순시했을 때 그 지방의 봉인(封人, 국경 경비 사령관)이 요왕에게 부디 장수하도록 하늘에 기도 드리겠다고 아뢰었다. 그러나 요왕은 그런 축복을 사양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수즉다욕(壽則多辱)이라, 즉 명이 길면 그만큼 욕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천년 만년 살고 싶었던 진시황도 50세밖에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다.

의술의 발달로 지금은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남자 72세, 여자가 79세라고 한다.

지난 2000년 기준으로 남녀 모두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남자 77.72세, 여자 84.60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노인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정년후, 퇴직후의 삶이 30년 내외가 된다고 가정하면 국가적으로도 노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각종 선거에서도 노인들의 표를 잡기 위한 정책개발이나 공약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의 힘 즉 실버 파워가 막강해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Z



이광호 · KBS 해설위원